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20. 6. 9.(화) 14:00~16:15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석대권(위원장), 김왕직, 박선희, 이향미,  
정귀원, 홍형순(이상 6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 |   |                                  |  |
|---|----------------------------------|--|
| 1 | 거창 동계 종택 주변 운동시설(게이트볼장) 신축       |  |
| 2 |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3 | 함양 허삼들 고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  |
| 4 | 보성 읍어리 고택 주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재심의)  |  |
| 5 | 울릉 나리 역새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재심의)      |  |
| 6 | 영주 무섬마을 내 전망데크 설치                |  |
| 7 | 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재심의) |  |

## 【검토사항】

- |   |                  |  |
|---|------------------|--|
| 8 | 남양주 궁집 종합정비계획 수립 |  |
| 9 | 상주 오작당 고택 지정 검토  |  |

## 【보고사항】

- |    |                 |  |
|----|-----------------|--|
| 10 |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
|----|-----------------|--|

# 심 의 사 항

## 1. 거창 동계 종택 주변 운동시설(게이트볼장)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주변 운동시설(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거창 동계 종택 주변 운동시설(게이트볼장)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3구역(이격거리 약 113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 :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허용. 단, 건축면적 330㎡ 초과 시 개별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거창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50-1
- (3) 신청위치 :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114-2
- (4) 신청내용 : 운동시설(게이트볼장) 신축
  - 대지면적 : 2,034㎡
  - 건축면적/연면적 : 542.88㎡/542.88㎡
  - 층수/높이 : 지상 1층/6.9m
  - 건축구조 : 철골구조
  - 지붕·외벽 : 조립식 판넬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5. 13.)

-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나, 종택과 신청 건물과의 거리, 건축 규모, 주변 환경의 맥락과 시각 구조 등의 측면에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건물 형태, 재료 등 보완 후 재심의

## 2.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이격거리 약 134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 : 개별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203㎡
  - 건축면적/연면적 : 65.61㎡/65.61㎡
  - 층수/높이 : 지상 1층/4.8m
  - 건축구조 : 목구조
  - 지붕·외벽 : 한식기와/마그네슘보도+황토미장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5. 20.)

- 함양 일주고택에서 약 135m 거리에 위치하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1층의 목구조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임.
- 신청지는 현상변경 1구역으로 마을의 끝자락이나, 마을 전체 경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안은 평면이나 입면에서 기존의 건축물과 조화가 어려우므로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됨. 재검토 시 주변 돌담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것.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3. 함양 허삼들 고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들 고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함양 허삼들 고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3m) 및 5구역(이격거리 약 210~26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도로 신설 및 확장 : 개별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함양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들 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96-1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일원
- (4) 신청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 도로 규모
    - 소로 2-3호선(금천리 205-2 일원)
      - L=43m, A=344m<sup>2</sup>, B=8m(기존 마을안길 B=5m)
    - 소로 2-27호선(금천리 24-17 일원)
      - L=272m, A=2,176m<sup>2</sup>, B=8m(기존 마을안길 B=8m)
    - 소로 1-6호선(금천리 24-13 일원)
      - L=81m, A=810m<sup>2</sup>, B=10m(기존 마을안길 B=8m)
  - 도로 포장 : 아스콘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5. 20.)

- 허삼들 고택 주변의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절·성토 없이 지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고택의 역사경관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고택 전면과 측면의 도로 확장 요청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4. 보성 읍어리 고택 주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재심의)

#####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6호 「보성 읍어리 고택」 주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보성 읍어리 고택 주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2, 3구역(이격거리 약 33~7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본 건은 2018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8. 14.) 심의결과(조건부가결)에 따라 사업 내용 보완 후 재신청하였음.
  -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입도로 및 둘레길 조성  
연지 및 우물조성은 고증 등을 거쳐 설계도서 보완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보성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6호 「보성 읍어리 고택」
  - 소재지 : 전남 보성군 읍어면 진천길 34-15
- (3) 신청위치 : 전남 보성군 읍어면 읍어리 151 외
- (4) 신청내용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 참샘우물터 정비

(당초) 참샘우물터 복원	(변경) 참샘우물터 정비
비가림시설, 족욕장, 등의자, 플랜터 담장 설치, 수목 식재, 판석 포장	비가림시설, 돌담장 설치, 판석 포장

\* 문헌자료가 없어 마을주민 구술 및 관계전문가(전 문화재위원 ○○○) 자문을 토대로 참샘 우물 형태 재구성

○ 휴게쉼터 조성

(당초) 연못 및 휴게쉼터 조성	(변경) 휴게쉼터 조성
물레방아, 연못, 등 의자 설치, 판석포장, 수목 식재	등의자 설치, 판석 포장, 수목 식재

\* 관계전문가(전 문화재위원 ○○○) 자문을 토대로 휴게쉼터 형태 재구성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5. 18.)**

- 본 사업은 울어리 고택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의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 사업으로, 우물터와 휴게쉼터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33~70m 이격되어 있고, 이전의 자문 내용을 수용하여 보완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5.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재심의)

### 가. 제안사항

경북 울릉군 북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70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 제2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20.4.28.) : 부결
  - 화장실 위치 등 부적절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울릉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 소재지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6-1
- (3) 신청내용

구분	1차('19.10.8.)	2차('20.4.28.)	금회(3차)
신청위치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7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27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24
대지면적	3,743㎡	3,743㎡	5,446㎡
건축면적/연면적	45.72㎡/45.72㎡	45.72㎡/45.72㎡	45.72㎡/45.72㎡
구조	철골조(컨테이너)	철골조(컨테이너)	철골조(컨테이너)
마감재료	지붕 너와잇기, 벽체 너와판벽마감	지붕 너와잇기, 벽체 너와판벽마감	지붕 너와잇기, 벽체 너와판벽마감
층수/높이	지상1층/4.4m	지상1층/4.4m	지상1층/4.4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문화재 주변 공용화장실 설치의 필요성, 설치부지가 수목으로 인해 문화재에서 잘 조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논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 형태, 재료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6. 영주 무섬마을 내 전망데크 설치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전망데크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영주 무섬마을 내 전망데크 설치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766(하천)
- (4) 신청내용 : 전망데크 설치
  - 데크 설치 : B=11.8m, L=4.32m, 난간높이 1.5m
  - 기둥 설치 : H형강(100×100×6×8) 16본(높이 : 변화치수)
  - 등 의 자 설치 : 3개

###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무섬마을 강 건너편 외나무다리과 마을 둘레길 연계를 위한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있는 벤치를 철거 후 전망데크 및 등 의 자를 설치하는 사업 계획임
- 데크 하부 H형강(변화치수) 노출에 따른 주변 경관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 7. 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재심의)

###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봉화읍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 「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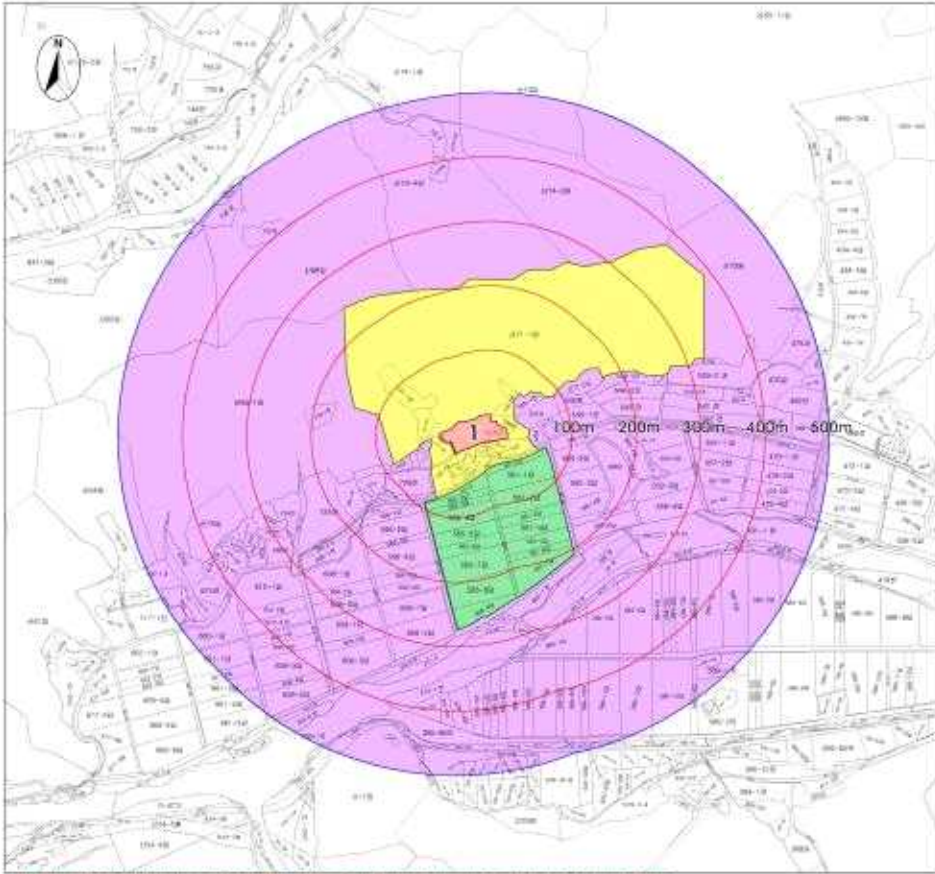
- 국가민속문화재로 신규 지정('17.8월)된 봉화 서설당 고택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제7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19.10.08.) : 부결
  - 허용기준 구역 설정 부적정, 공통사항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 「봉화 서설당 고택」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554
- (2) 검토내용
  - 국가민속문화재(고택) 경관관리 중점지표
    -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 허용기준안(당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합(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합.(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본 도면은 축척변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본의 용역계약 체결유무에만 활용하시기 위하여, 법적 및 타종도면 사용용도입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영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대상문화재**

1. 행위 사업영위유관인형 문화재  
- 위치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보림길 120-1(종교리 554)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구역별 허용기준**

구역	허용기준		
	영지부	경사지붕 상대높이 10.3미터	층도
1구역	개별심사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0미터	건축물 최고높이 3.50미터	
3구역	황외권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규정**

- 기존 건축물은 기존 행위 구역내에 - 건축물 부속 및
- 건축물 독립물건은 복합, 복합형, 복합시설, 복합형 등 3차 차등 용도인 건축물
- 위층을 국방 및 주차용, 또는 용도변경(주차용, 복합형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제정된 용도(용도)에 따라 용도변경
- 건축물 높이 20m 또는 건축면적 330㎡ 또는 건축물용도(복합형 건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
- 용도 2차 차등용도(복합형)는 건축물 부속(부속)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은 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
- 건축물 용도변경 2차 차등 용도(복합형)는 건축물 부속(부속)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은 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
- 해당지역의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
- 해당지역의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축척**

0 50m 100m 150m A3 : 1/5,000





# 검 토 사 항

## 8. 남양주 궁집 종합정비계획 수립

###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의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남양주 궁집의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 등 소유자 변경에 따라 2017년 기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남양주에서 자체 수립 정비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 요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남양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9
- (3) 주요내용

구분	종합정비계획(2017 수립)	금회(2020)
주요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외주차장 설치(주차대수 60대)</li> <li>- 화장실 설치 2개소</li> <li>- 매표소 및 안내소 설치</li> </ul> </li> <li><b>2. 기초기반시설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시설 정비(토사측구 또는 소형 측구)</li> <li>- 진입부 포장정비(마사토 포장)</li> <li>- 단지내 포장/산책로 조성</li> </ul> </li> <li><b>3. 조경 및 경관 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연못 정비</li> <li>- 야외공연장 정비</li> <li>- 수로 정비</li> <li>- 야외 조경 정비 등</li> </ul> </li> <li><b>4. 중·장기 정비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집 및 부속사 활용 프로그램</li> <li>- 무의자전시관 리모델링</li> </u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단계(~2022)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궁집 문화재 정비 : 기둥, 연목, 벽체 등 보수, 화길옹주 생활문화관 공간 조성</li> <li>·생활문화센터 조성 : 부속사 수리 및 증축(문화 커뮤니티, 관람객 편의시설, 카페테리아, 이벤트 &amp; 공연홀), 부속사 7,8 철거</li> <li>·조경정비 : 축사 및 폐가옥 철거, 경계담장 정비, 조명시설 정비, 안내시설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li> <li>·진입공간 정비 : 지하주차장 설치(4,700㎡), 안내소 및 매표소 설치, 화장실 등 설치, 대문채 이축</li> </ul> </li> <li><b>2단계(~2022) 생활문화센터 확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문화센터 확장 : 부속사 증축(이벤트&amp;공연홀), 무의자전시관 수리 및 증축(기념관&amp;운영사무실)</li> </ul> </li> <li><b>3단계(~2026) 방문자 편의를 위한 추가시설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시설 조성(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신축), 조경 및 경관 정비</li> </ul> </li> </ol>

####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궁집의 보호구역 매입 및 기부채납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정비 및 활용계획을 재수립하여 검토 요청한 사항임.
- 과거 이전 설치된 부속사의 철거 및 증축, 부속사 용도변경, 대문채 이축 등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주차장의 지하 설치 및 규모에 대한 논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물 신축을 통한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시설물 종류, 규모 등이 부적정함

## 9. 상주 오작당 고택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낙동면 소재 「상주 오작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32호 「상주 오작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소위원회(2012. 12. 17.) 결과 : 지정가치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상주 오작당 고택(尙州 梧昨堂 古宅/Ojakdang House, Sangju)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선상서로 1975(승곡리 131-2)
  - 소유자 : ○○○ 외
  - 수량 : 일괄(건축물 6동 357.3㎡, 토지 1,347.7㎡<3필지>)
  - 건축물 지정 : 6동 357.3㎡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채	조선시대	목조/5량가/정면5칸, 측면2칸/맞배지붕	130.1㎡	○○○
사랑채	조선시대	목조/3량가/정면7칸, 측면2칸/맞배지붕	150.0㎡	○○○
가묘	2015년 개축	목조/3량가/정면1칸, 측면1칸/맞배지붕	19.2㎡	○○○
대문	미상	목조/3량가/정면1칸, 측면1칸/맞배지붕	17.9㎡	○○○
화장실	미상	목조/3량가/정면1칸, 측면1칸/맞배지붕	20.4㎡	○○○
사당	2015년 개축	목조/3량가/정면1칸, 측면1칸/맞배지붕	19.7㎡	○○○
계			357.3㎡	

- 토지 지정 : 4필지 1,347.7m<sup>2</sup>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m <sup>2</sup> )	지정(m <sup>2</sup> )	소유자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129-2	전	4,303	304.5	○○○ 외 5인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131-2	대	1,071	951.1	○○○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354-1	전	1,174	18.5	풍양조씨 입재공파중중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산55-1	임	25,587	73.6	○○○
계			32,135	1,347.7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문화재위원 ○○○>

- 신청인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따르면, 오작당의 건축적인 특징은 안동 지역과 상주지역의 평면형태가 절충되었고, 고상식 구조로 2층의 다락이 존재하는 특징적인 입면 형태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평면형태가 상주지역의 개방적의 입지성향에 안동지역의 산악, 폐쇄적인 배치 및 평면구조를 수용한 이중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며, 종가의 생활보다 행례를 주기능으로 한 전형적인 안동문화권 뜰집 유형과 상주지역의 개방적인 본채 구성의 중간형태로 보여진다고 한다. 고상식 구조는 단순히 고상식 형태를 채택하여 누하부나 기단부만을 높게 올리 것에 그치지 않고, 부엌 상부에 다락을 둔 2층 구조의 입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한다.
- 문중의 인물들이 관직에 나아갔지만, 향촌사회에서 교육과 학문으로 더 영향력 넓힌 것으로 보인다. 조대운은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조목수는 교육자이자 상주의 큰 유학자로 향촌사회에 끼친 영향도 크다. 특히, 조목수가 남긴 구당집(舊堂集)에 수록된 영남 만인소 관련 기록은 당시 상주지역의 유학자들의 정치적 동향을 이해하는 주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오작당에서는 4대 봉사, 설과 추석 명절, 불천위 제사를 포함하여 일년에 받드는 제사만 해도 12번이다. 불천위는 구당 조목수(趙沐洙, 1736~1807)의 유학자로서 학행을 기리기 위해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로 모시고 있다. 이 제사는 원래 봄, 가을 두 번을 지냈으나, 3년 전부터는 봄에 춘향만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례의 과정이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제물에서도 안동·상주 지역에 많이 사용하는 문어가 아니라 방어를 사용하고 소의 간과 천엽 등을 올리고, 송화가루를 마련해두었다가 다식 만드는 등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보인다.

이외에 유학자 집안으로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의 종회에서 조상을 기리는 행사들이 20여회 이상 하는 등 문중의 크고 작은 행사들 하고 있어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

- 이와 같이 상주 오작당 고택은 향촌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이 갖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문화재위원 ○○○>

- 상주 오작당은 기록을 통해 창건 연대가 1663년으로 명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81년 중건 이후 익량의 소실과 문간채의 변형을 고증할 만한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 건물의 원형을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심증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평면과 배치의 구성이 상주 양진당과 거의 흡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원형이 고증되고 남아 있었다면 상주 양진당과 같이 쌍벽을 이루며 독특한 고상식 가구와 문간 및 본채의 평면구성 등이 매우 특징적이고 지역 및 시대적 특성을 나타내어 건축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형의 변형과 훼손이 많아 유적을 통해 이를 느낄 수 없고 고증자료 또한 부족해 이러한 점들이 밝혀지기까지는 지정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 오작당 고택은 풍양조씨 입재공파의 종택으로서 기타 문중의 종택과 비교할 때 특이한 창건 배경을 갖고 있으며, 또한, 매년 불천위 제례가 행해지고 있고, 종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중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건축적 내력 즉, 변형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또한 행랑채 복원과 관련하여 문화재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없어, 국가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현재의 경상북도 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변형 · 훼손 및 고증자료 부족



#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18>

(앞쪽)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년 1월 7일	대상문화재	상주 오작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민속
	소속	전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상주 오작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오작당 고택은 낙동면 승곡리에 자리고 있으며, 종택의 정면으로 봉우리가 세 개인 '삼봉산' 특히 '문필봉'을 마주하고 있어 문장가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연혁·유래 및 특징	상주 오작당은, 풍양조씨 입재공파 파시조 조대운(趙大胤, 1638~1705)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1663년에 건립하였고, 고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오작당은 안동지역과 상주지역을 혼합한 평면구조와 상주지역의 고상식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택에는 불천위와 전통적인 제례를 잘 전승하고 있다. 풍양조씨 가문은 조선후기 상주 향촌사회에 끼친 영향이 많은 인물들이 있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상주 오작당 고택과 전승되는의례와 자료들은 향촌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이 갖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상주 오작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유자 :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선상서로 ○○○(승곡리)]
- 신청인 : ○○○(○○○, 1958 - , 오작당 종손)

## 1. 오작당 건립과 고택의 사람들

### 1) 오작당 건립

상주 오작당은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에 자리하고 있다. 오작당이 자리 잡고 있는 낙동면 승곡마을은 운곡마을과 더불어 상주에서 잘 알려진 풍양조씨(豐壤趙氏) 집성촌이다. 이 고택은 풍양조씨 입재공파 종택인데, 흔히 ‘오작당(梧昨堂)’이라고 한다. 오작당(梧昨堂)은 소학(小學)에 “소학서중오작비(小學書中梧昨非, 어제(지난 날)의 잘못을 소학책을 읽고 깨달았다.)” 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오작당은 입재(立齋) 조대운(趙大胤, 1638~1705)이 1661년(현종2년) 원래 양진당 자리에 있던 종가를 새로운 터인 사천(思泉)에 옮겨 왔다 하여 ‘사천’ 또는 ‘사천종가(思泉宗家)’라고도 한다. 그 근거는 오작당 중수기의 “요포(繞浦)의 옛터(양진당의 옛터)에서 처음 지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는 기록이다.

이 건물은 임란(壬亂) 때 창의한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양진당(養眞堂, 보물 제1568호)을 건립하기 전인 1601년에 지은 집을 1661년에 이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오작당 중수서), 현재의 집은 조정의 증손자 조대운(趙大胤, 1638~1705)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1663년에 오작당(梧昨堂)을 건립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입재공 연보).

조정(趙靖)이 상주 양진당을 건립한 것은 1628년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601년에 양진당 터에 지은 집을 1661년에 이기한다는 기록은 문중에서 전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오작당중수서(梧昨重修序)를 작성한 조석철(趙錫喆, 1724-1799)은 오작당을 건립한 조대운(趙大胤)의 증손자로 양진당 터에 건립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오작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작당은 양진당 조정(趙靖, 1555-1636)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집이다. 이것으로 보아 조정의 둘째 아들 조영원(趙榮遠, 1577~1640)이 혼인한 후 양진당과 바로 인접한 마을로 분가했을 수 있다. 그 뒤 조영원(趙榮遠)의 손자 조대운(趙大胤)이 아버지 조릉(趙稜, 1607~1683)의 명에 따라 현재의 자리에 터를 잡고 1663년에 오작당을 건

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대윤(趙大胤)의 증손자 조석목(趙錫穆)의 지원으로 1781년 중수하였다.

## 2) 고택을 이어오는 사람들

오작당의 주인공들은 풍양조씨 호군공파 후손인 입재공파(사천파)로 상주 양진당 건립자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을 중시조로 하고 있으며, 오작당을 건립한 입재(立齋)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을 파시조로 하고 있다.

입재(立齋)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은 지금의 오작당을 건립한 장본인이자 입재공파(사천파)의 파시조이다. 조대윤은 조선후기의 학자이자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둘째 아들 조영원(趙榮遠, 1577~1640)의 손자이다. 이현일(李玄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조릉(趙稜, 1607~1683)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병환 중에 있을 때 지극 정성으로 보살핀 효자였다고 한다.

그의 연보를 보면

“... 1698년 공 61세 — 거차하시는 마루와 방이 동향이기 때문에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을 견딜 수 없으므로 자제들이 소나무 가지로 처마를 달아내어 가리기를 청하니 공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이 계실 때도 가리지 않았던 것인데 내 어떻게 감히 자신이 편하려고 하겠느냐」 하며 중지키시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그가 오작당에 거주하면서 집이 동향이라 여름에 햇볕 많이 들어와서 처마를 달아내려니 돌아가신 부친을 생각하며, 못하게 할 만큼 부친에 대한 효심이 돈독하였다, 또, 이 기록은 현재 오작당이 적어도 조대윤이 건립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 좌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조대윤은 1675년(숙종 1) 사마시에 합격,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연구하였으나 당쟁이 심한 데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위기학(爲己學)에 전념하였다. 시문집으로 『입재유고(立齋遺稿)』가 있으며, 통덕랑(通德郎)에 제수되었다.

조대윤의 손자 조시경(趙時經, 1686~1755)은 경학과 덕행을 함께 하였으며, 사숙(私塾)을 열어 영재 교육에 몰두하였다. 조시경의 장자 존성재(存省齋) 조석우(趙錫愚, 1721~1760)는 증광 문과에 올라 사헌부 지평에 이르렀다.

그는 가학으로 학업을 이루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손들을 훈육하는데 힘썼다. 아버지로부터 가학을 물려받아 5세에 효경에 통달하였고, 6세에 19사(史)를 배움에 남보다 뛰어났다 한다. 1754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에 이르렀으나, 안타깝게도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된다.

지금도 문중에서는 조석우가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상주에서 풍양조씨의 학문적 위상은 어떠했을지 알 수 없었다고 할 만큼 학문적으로 출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

세학 뿐만 아니라 이기철학에도 밝아 이기론을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여겼다고 한다. 문집으로 『존성재유고(存省齋遺稿)』가 전하고 있다.

조선후기 상주지역의 큰 선비이자 교육자로는 조대윤의 고손자 구당(舊堂) 조목수(趙沐洙, 1736~1807)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조부 조시경(趙時經, 1686~1755)에게 글을 익혀 경술(經術)과 문장(文章)이 깊고 넓었으며, 당대 사림(士林)을 이끌어 사문(斯文)의 표준(表準)이라고 할 만큼 추앙을 받은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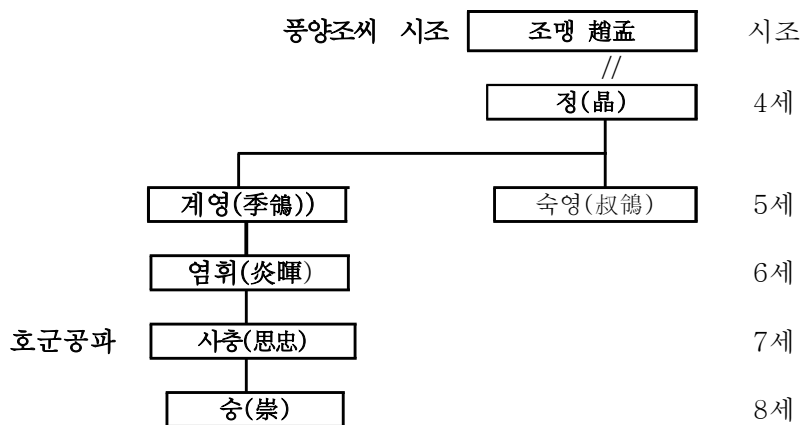
오작당의 사랑채로 들어가는 마루 위에는 구당(舊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바로 조목수가 선조의 업(業)을 성실히 잇고 가풍을 진작시키려는 마음으로 집을 ‘구당’이라 하고 자호로 삼았다고 한다. 조부로부터 가학을 전수받고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요체를 배웠다. 재능이 넘치었고 예절에도 남달라 조부는 재기(才氣)를 누르고 덕성을 펴게 하였다고 한다.

집안 대대로 받들어 모시는 분은 학문이 높아서 만이 아니다. 학문적 높이와 인격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입재 조대윤에서 구당 조목수까지 그 사이에 학문을 높이 닦은 사람이 있지만, 덕행은 구당 조목수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향촌사회에서 학덕을 인정받았으므로 사림(士林)의 공통된 뜻에 따라 위패를 옮기지 않는 불천위로 모셔지게 되는 것이다.

조목수는 창석(蒼石) 이준(李峻, 1560-1635)이 최초로 편찬한 상주의 역사서인 『상산지(商山誌)』를 수록하였다. 이를 상산지 구당본(舊堂本이라고 하며, 현재 상주박물관에 기탁 보관되어 있다. 또한 시문집인 『구당공고(公稿)』와 문집인 『구당 선생 문집(舊堂先生文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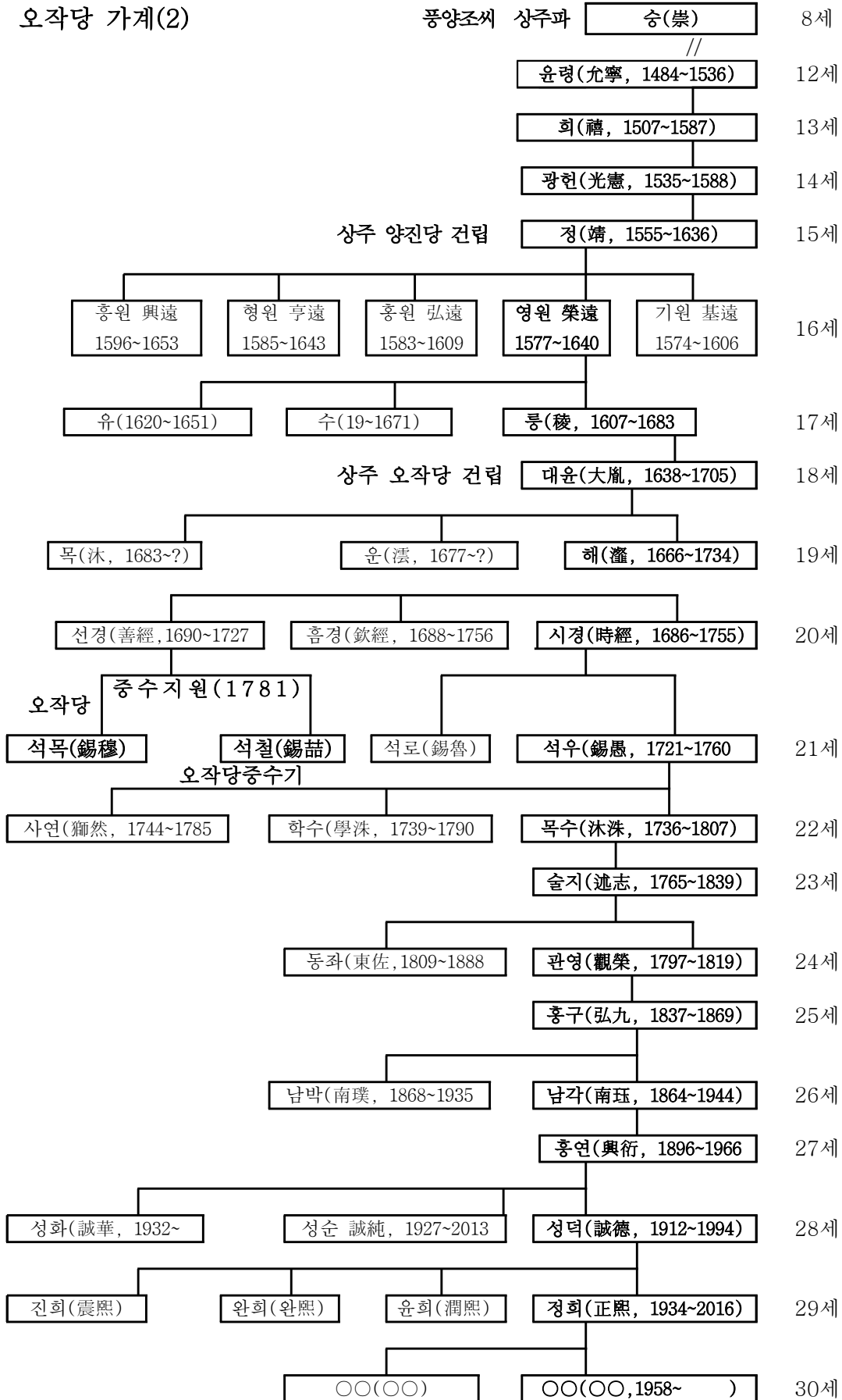
오작당의 가문에서는 입재 조대윤에서 구당 조목수까지 그 사이에 학문을 높이 닦은 사람이 있지만, 구당 조목수가 가장 높은 학문과 덕행을 인정받았고, 유림(儒林)에서 오작당의 사당에 불천위로 모시도록 한 것이다. 상주의 불천위종가는 모두 8개 문중. 10인이며, 풍양조씨 문중의 불천위인물은 양진당 검간 조정과 오작당의 구당 조목수가 있다.

오작당 가계(1)



오작당 가계(2)

풍양조씨 상주파



## 2. 고택의 의례와 전승자료

### 1) 의례

전통적으로 이른바 명문가에서는 혼상제례에 관련한 그 절차가 엄격하고 자료들도 많이 남기고 있지만, 오작당에서 전하는 문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별로 없고, 혼례와 상례는 이미 현 종손의 부친 이후에 모두 현대적인 방식으로 예식장 혼례와 장례식장에서의 장례 등으로 바뀌었다. 현 종손(○○○)의 부친이 사망하였을 때는 장례는 병원장례식장에서 했지만, 집의 사랑에 일년간 빈소를 모셨고, 3년동안 종손이 출입을 삼가하면서 간소하게나마 3년상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신위(神位)를 사당에 모시는 의례인 길사(吉祀)를 지낼 예정이다. 유교적인 관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조상을 받드는 제례는 꾸준히 전승하고 있다.

오작당에서는 4대 봉사, 설과 추석 명절, 불천위 제사를 포함하여 일년에 받드는 제사만 해도 12번이다. 불천위 제사의 경우 원래 봄, 가을 두 번을 지냈으나, 3년 전부터는 봄에 춘향만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사에 필요한 경비는 종가에서 마련 한다. 불천위 제사의 경우 구당 조목수(趙沐洙, 1736~1807)의 불천위를 봉안할 당시 입재공파에서 재원으로 논과 밭 수 두락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소출로 충당하고 있다.

제사의 상차림은 유가(儒家)의 범절안에서 집집마다 차이가 있다. 그 문중에서 특이하게 올리는 제물은 해당 조상의 성품과 연관되거나 제사를 지내는 철에 따라 올라가는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에 오르는 제물의 목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오작당의 제물 특징은 직접 송화가루를 마련해 놓았다가 다식을 만들어 올리며, 제철에 나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고, 양진당 검간 조정선생의 불천위 제사와 마찬가지로 방어를 쓴다는 것이다. 다른 가문에서는 주로 문어를 사용하지만, 상주에서는 드물게 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소고기 간과 천엽도 올라간다.

이외에 제수음식은 제주, 메, 갯, 오탕(육탕, 어탕, 계탕, 북어탕, 열합탕), 면(국수), 두부전, 편, 포(대구포, 육포, 문어포), 구이[조기, 황태, 파전, 전(동그랑땡), 각종 전, 돼지고기], 김, 문어, 조기, 계적, 숙채, 씬, 침채, 조과(강정, 다식, 약과), 실과(대추, 밤, 호두, 배, 사과, 수박, 참외, 오렌지, 귤) 등이다. 사정에 따라 제물의 가짓수와 종류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제사는 밤 10시경 문중성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제사를 담당할 초헌관, 아헌관, 중헌관, 축관, 집례 등을 정하는 집사분정(執事分定)을 작성하고, 자시(子時)경 사당에서 홀기에 따라 제시를 올린다.

### 2) 고문서와 생활용품

상주 오작당의 문중 고문서 자료는 약 1,032점으로 소차계장류가 92점, 첩관통보류가 18점, 증빙류가 49점, 명문문기류가 72점, 서간통고류가 728점, 치부기록류가 39점, 시문류가 34점 등이다. 이 자료는 안동국학진흥원 한국학자료센터에 기탁되어 있다.

대부분 간찰류이지만, 1600년대 재산분배 문서 별급문기, 1800년대 토지 매매문서 등 재산과 관련한 문서도 보인다. 민속품으로 황옥장(黃玉丈)이 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고, 집에는 장롱류와 소반 등이 보관되어 있다. 황옥장은 매호 조우인(曹友人)이 1672년 정선군수로 갔다가 오대산에서 꺾어 만들어 보물로 여긴 것으로 조상사(趙上舍)가 늙고 병든 것을 애석하게 여겨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판으로는 오작당중수서(梧昨堂重修序)가 있는데, 오작당의 건립 시기를 짐작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중수서는 입재(立齋)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의 증손자 조석철(趙錫喆, 1724-1799)은 적은 것이다.

문집으로는 구당(舊堂) 조목수(趙沐洙, 1736~1807)의 구당집(舊堂集)이 대표적이다. 이 문집에는 정조연간 임오의리[壬午義理, 사도세자를 비판한 신하들의 행동을 ‘대의(大義)’로 평가]와 관련된 영남 남인의 정치적 지향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영남 만인소’[1792년(정조 16년) 영남 유생 1만57명이 연명해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과 모함을 풀어 달라는 상소] 이후 다시 남인들이 임오의리(壬午義理) 천명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여주는 편지가 실려 있어 정조 16년 이후 정치동향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외에 구당 조목수가 1786(정조 10)년 쓴 『상산지병오초책(商山誌丙午草冊)』이 있다. 최초의 상산지는 창석(蒼石) 이준(李峻, 1560-1635)이 쓴 것이며, 병오초책은 세 번째 상산지로서 당시 상주지역의 문화전반을 읽어내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3. 조사자 의견

상주 오작당은 문중의 자료를 종합하면, 풍양조씨 입재공파 파시조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1663년에 오작당(梧昨堂)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고택은 상주 양진당(養眞堂, 보물 제1568호)을 건립한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둘째 아들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것으로 보아 조정의 둘째 아들 조영원(趙榮遠, 1577~1640)이 혼인한 후 양진당과 바로 인접한 마을로 분가했을 수 있다. 그 뒤 조영원(趙榮遠)의 손자 조대윤(趙大胤)이 아버지 조릉(趙稜, 1607~1683)의 명에 따라 현재의 자리에 터를 잡고 1663년에 오작당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대윤의 증손자 조석목(趙錫穆, 1736~1807)의 지원으로 1781년 중수하였다.

풍양조씨가 15세기경부터 상주에 세거하였고, 16세기부터 향촌사회의 주도세력 중 하나의 가문으로 성장하고, 17세기 상주지역을 대표하는 영남학과 일원이 된다. 오작당의 가문도 양진당을 지은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 후손들이 상주 향촌사회에서 정치·사회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작당을 건립한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이나, 그의 고손자 구당(舊堂) 조목수(趙沐洙, 1736~1807)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안에 전승하는 문서와 의례들을 통하여서도 한 집안의 생활사나 향촌사회의 영향 등도 함께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그 가치들을 요약할 수 있겠다.

1. 오작당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택인 것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적인 특징은 안동지역과 상주지역의 평면형태가 절충되었고, 고상식 구조로 2층의 다락이 존재하는 특징적인 입면 형태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평면형태가 상주지역의 개방적인 입지성향에 안동지역의 산악, 폐쇄적인 배치 및 평면구조를 수용한 이중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며, 종가의 생활보다 행례를 주 기능으로 한 전형적인 안동문화권 뜰집 유형과 상주지역의 개방적인 본채 구성의 중간형태로 보여진다고 한다.

고상식 구조는 단순히 고상식 형태를 채택하여 누하부나 기단부만을 높게 올리 것에 그치지 않고, 부엌 상부에 다락을 둔 2층 구조의 입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한다.

2. 문중의 인물들이 관직에 나아갔지만, 향촌사회에서 교육과 학문으로 더 영향력 넓은 것으로 보인다. 조대운은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조목수는 교육자이자 상주의 큰 유학자로 향촌사회에 끼친 영향도 크다. 특히, 조목수가 남긴 구당집(舊堂集)에 수록된 영남 만인소 관련 기록은 당시 상주지역의 유학자들의 정치적 동향을 이해하는 주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고택에서는 제례와 불천위 등의 전통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오작당에서는 4대 봉사, 설과 추석 명절, 불천위 제사를 포함하여 일년에 받드는 제사만 해도 12번이다. 불천위는 구당 조목수(趙沐洙, 1736~1807)의 유학자로서 학행을 기리기 위해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로 모시고 있다. 이 제사는 원래 봄, 가을 두 번을 지냈으나, 3년 전부터는 봄에 춘향만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례의 과정이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제물에서도 안동·상주지역에 많이 사용하는 문어가 아니라 방어를 사용하고 소의 간과 천엽 등을 올리고, 송화가루를 마련해두었다가 다식 만드는 등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보인다.

이외에 유학자 집안으로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의 종회에서 조상을 기리는 행사들이 20여회 이상 하는 등 문중의 크고 작은 행사들 하고 있어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주 오작당 고택은 향촌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이 갖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1.7	대상문화재	상주 오작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시도 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상주 오작당 고택(尙州 梧昨堂 古宅)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서쪽의 갑장산(해발 805m)을 주산으로 동쪽 산자락 끝에 동향하여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는 낙동강 지류인 장천이 좌우로 흐르고 있는 명당이다.
	연혁·유래 및 특징	조대운에 의해 1663년에 창건되었고 1781년에 중건되었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오작당이 원형이 살아 있었다면 상주 양진당과 함께 고상식이라는 가구적 특징과 본채와 문간채가 ‘口’자로 연결된 배치 및 평면구성의 지역적 특색이 잘 나타난 매우 희소한 건축적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본채는 익랑이 소실되었고 문간채는 변형이 심하며 원형을 증빙할만한 고증자료도 없는 상태이다.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원형이 살아 있었다면 상주 양진당과 쌍벽을 이룰 정도의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지녔을 것이지만 본채 익랑의 소실과 문간채의 많은 변형은 이러한 가치를 손상시켰다. 또 그 변형과 원형을 추정할 만한 고증자료도 부족하여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까지는 지정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상주 오작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상주 오작당은 경북 상주시 선상서로 1975 승곡리에 있다. 서쪽에 있는 갑장산(해발 805m)에서 동쪽으로 빠져 내려온 산자락 끝 평지에 가까운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집은 동향으로 앞쪽에는 남에서 북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빠지는 장천이라는 지류에 면하고 있다. 집과 장천 사이에는 넓은 논밭이 있으며 주변에는 양진당, 의암고택, 추원당, 옥류정 등이 분포하고 있다.

## 2. 연혁 및 유래

오작당은 입재연보에 따르면 조대윤(趙大胤, 1638~1705)에 의해 2대의 산소가 연결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 1663년 창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작당중수서에 따르면 1781년 문중의 후손인 조석목에 의해 중수되었다. 이후 중수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1982년 경상북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1988년에는 사랑채 기단 및 번와보수가 있었으며 1991년에는 담장보수, 1992년에는 안채 기단 및 번와보수가 있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사주문 건립과 행랑채 복원이 있었다.

## 3. 건축배치 및 특징

오작당은 현재 동향을 하고 있으며 맨 앞에 사주문을 놓아 대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주문은 1993년에 건축한 것으로 원형이 아니다. 1981년 지정 당시에는 담장에 개구부를 내고 양쪽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출입에 사용한 정도이다. 사주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길게 놓인 중문간채와 사랑채가 붙어있다. 1981년 지정당시에는 중문간채 자리에 헛간이 있었으며 1993년까지도 창고로 사용하였다. 2011년 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 현재 사랑채라고 명명하는 부분은 1981년 지정 당시에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대문, 중문, 마루방 2칸이 연속되어 있었고 남쪽 마루방에서는 서쪽으로 방이 돌출되어 올라가 안채 건넌방과 같은 열을 이루고 있었다. 1993년까지 이 모습은 연속되다가 중문간채를 중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양통집으로 가운데 3칸은 대청을 들이고 대청 안쪽 2칸에는 안방을 들였다. 좌측 앞뒤 2칸은 부엌, 우측 앞뒤 2칸은 건넌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주

양진당은 비록 정면이 9칸, 측면이 2칸으로 규모는 훨씬 크지만 대청과 안방을 나란히 놓고 좌측에 부엌, 우측에 건넌방을 둔 배치 개념은 동일하다. 또 양쪽 측면 협칸에서는 남쪽으로 익랑이 빠져 내려와 문간채와 연결되고 있다. 양쪽 익랑은 4칸이며 문간은 좌우 9칸으로 안채와 동일하다. 문간은 가운데 대문을 두고 우측으로는 방 2칸과 마루방 2칸이 연속되어 있으며 좌측은 헛간2칸과 방2칸이 연속되어 있다.

상주 오작당도 맨 우측 2칸이 마루방으로 전면으로 열려 있는 모습이 상주 양진당과 동일하다. 또 대문과 마루방 사이에는 양진당은 방이 2칸이었으나 오작당은 규모가 작아 방이 1칸이었다. 그러나 그 평면구성의 개념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좌측은 현재 헛간이었던 곳에 문간방 2칸을 들였으나 원형 여부는 알 수 없다. 상진당과의 비교를 통해 복원해 본다면 문간은 7칸일 가능성이 크며 안채가 5칸이기 때문에 익랑이 빠져내려와 한 칸 안쪽에서 연결되고 양측으로 한 칸씩이 돌출된 ‘口’자 배치로 추정된다. 문간이 익랑보다 한 칸씩이 돌출된 것은 안채가 5칸으로 작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781년 이후 중수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지만 양진당과 같이 좌우에서 익랑 3칸이 빠져 내려와 문간과 연결되어 ‘口’로 구성된 평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안채 양쪽 협칸이 맞배지붕으로 남아 있는 것과 연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의 마감, 본채와 문간이 가깝고 익랑 3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 등이 이를 반증한다. 문간의 평면구성도 양진당과 거의 유사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남아 있었다면 양진당과 같은 고상식이면서 사랑채 없이 문간과 본채가 ‘口’자로 연결된 특색있는 살림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채의 익랑은 언제 소실되었는지 고증되지 않으며 문간은 마루방과 방한 칸 정도 원형을 남기고 거의 근래에 변형된 채로 전해지고 있다.

#### 4. 지정가치

상주 오작당은 기록을 통해 창건년대가 1663년으로 명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81년 중건 이후 익랑의 소실과 문간채의 변형을 고증할 만한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 건물의 원형을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심증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평면과 배치의 구성이 상주 양진당과 거의 흡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원형이 고증되고 남아 있었다면 상주 양진당과 같이 쌍벽을 이루며 독특한 고상식 가구와 문간 및 본채의 평면구성 등이 매우 특징적이고 지역 및 시대적 특성을 나타내어 건축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형의 변형과 훼손이 많아 유적을 통해 이를 느낄 수 없고 고증자료 또한 부족해 이러한 점들이 밝혀지기까지는 지정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1.7.	대상문화재	상주 오작당 고택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	직위(직책)	상근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상주 오작당 고택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상주시내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9km 정도 벗어난 승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택 뒤로는 갑장산의 맥을 잇는 야산이 자리잡고, 앞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장천이 흐르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배산임수의 형국을 취하고 있다.
	연혁·유래 및 특징	풍산조씨 입재공파 파시조인 조대운(趙大胤, 1638~1705)이 1663년 현재의 위치에 고택을 이건(移建)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오작당 고택은 특이한 창건 배경을 갖고 있으며, 또한, 매년 불천위 제례가 행해지고 있지만, 건축적 내력 즉, 변형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검토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오작당 고택은 종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중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적 내력 즉, 변형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또한 문화재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없어, 가치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2020년 5월 일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상주(尙州) 오작당(悟昨堂) 고택(古宅)」

##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조사 의견서

조사자 : ○○○ 문화재전문위원

1. 대상유적 : 상주 오작당 고택(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2호)

2.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선상서로 1975(송곡리 131-2)

### 3. 창건과 변천

‘오작당(悟昨堂) 고택’은 풍산조씨 입재공파 종택으로서, 흔히 오작당이라 일컬어진다. 당호(堂號)인 ‘悟昨堂’은 소학(小學) 경전에 나온 ‘小學書中悟昨非’에서 유래하며, ‘지난 날의 잘못을 소학을 읽고 깨달았다’라는 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문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 중 『입재공연보』, 『오작당중수서』 및 근간에 문중에서 발행한 『국역 풍성세고』, 『오작당 창건 사백년 기념비문』 등의 기록을 근거로, 창건 배경과 변천 과정 등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창건 배경에 대해서는 입재 조대운(趙大胤, 1638~1705)이라는 인물이 부친인 모암 조릉(趙稜, 1607~1683)의 명으로 부조(父祖) 2대(代) 묘소에 인접한 지금의 위치에 고택을 세워 아침, 저녁으로 성묘하기에 좋은 점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조대운의 이러한 효성심은 일성록(日省錄)의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건립 시기 및 방법, 주체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이견이 분분한데, 각 설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시기	주체	주요내용	구분(규모)
1설	1661년	조대운	새 터(사천)에 옛 터(요포)의 살림집 이건(移建)	內外舍 40餘間
2설	1601년	조정	옛 터(요포)에 살림집 초창(初創)	內外舍 40餘間
	1663년	조대운	새 터(사천)에 옛 터(요포)의 살림집 이건(移建)	
3설	1601년	조정	옛 터(요포)에 살림집 초창(初創)	內外舍 40餘間
	1661년	조대운	새 터(사천)에 옛 터(요포)의 살림집 이건(移建)	현재 규모

먼저, 오작당 고택이 현재의 위치에 초창(初創) 되었다기 보다는 옛 터인 요포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살림집을 이건(移建) 해 온 것으로 보이며, 또한 조대운이 1638년 요포리에서 출생한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그가 한동안 생활하였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간 조정의 연보(年譜)와 요포리 살림집의 건립 시기를 비교해 보면,

건립 주체를 검간 조정으로 보는 설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982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서는 1601년 오작당을 현재의 위치에 초창했으며, 이후 1661년과 1781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가 이루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건 당시 오작당 고택의 규모는 내외사(內外廡)를 합쳐 모두 40여 칸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후 1781년에 이르러 입재 조대운의 증손인 ‘조석목’이라는 인물에 의해 대대적인 중수(重修)가 이루어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규모로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창(初創) 당시 40여 칸의 공간 중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이 얼마만큼 소실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1982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서는 중수 과정에서 안채 좌·우 양측에 붙어 있었던 정면2칸×측면1칸 규모의 익랑채가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고, 본래(원형)는 검간 조정이 건립한 ‘상주 양진당(보물 제 1568호)’과 유사한 형태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고증자료 등이 확보되지 않아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국가민속문화재로서의 승격 여부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대문간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연결되어 있는 문간채의 경우, 과거(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에는 일정한 격식 없이 흙벽으로 축조된 광과 헛간으로 사용되었으나, 1994년 현재의 형태와 규모로 새롭게 복원되어 사랑채와 함께 문간채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하지만, 복원과정에서 민속문화재로서의 완정성 및 진정성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현재 오작당 고택의 경내에는 안채와 함께 문간채,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으며, 안채 뒤편으로는 담장 안쪽으로 가묘(家廟)가 자리 잡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 되어 2015년에 동일한 규모와 형태로 개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담장 밖으로는 22세손인 ‘구당 조목수(趙沐洙, 1736~1807)’의 불천위 사당이 별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다.

오작당 고택은 1982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2호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이후 안채 및 사랑채 보수 등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있었으나 상량문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1994년에는 행랑채 복원이 있었다. 1970년대 이후 각 연도별 항공사진 속의 모습을 근거로 하면, 행랑채 복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고택의 배치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건축구조 및 양식

오작당 고택은 상주시내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9km 정도 벗어난 승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택 뒤로는 갑장산의 맥을 잇는 야산이 자리잡고, 앞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장천이 흐르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배산임수의 형국을 취하고 있다. 고택이 위치한 승곡리 마을은 풍양조씨의 집성촌으로 주변에는 양진당, 의암고택, 추원당, 용산정사, 옥류정, 등의 문화유산들이 위치하고 있다.

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가묘, 사당 등으로 일곽을 구성하고 있으며, 안채

를 중심으로 그 앞쪽으로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고, 사랑채 좌측편으로는 대문칸을 사이에 두고 행랑채가 연결되어 있다. 이들 각 채들은 안채를 중심으로 모두 동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는데, 『입채공연보』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집의 좌향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을 엿 볼 수 있어 이는 아마도 지형상의 조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작당 고택은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평탄한 평지의 터에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안채의 경우 비교적 높은 자연석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은 인근에 검간 조정이 1628년에 건립한 양진당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작당 고택을 검간 조정이 최초 건립한 것으로 기록한 『오작당중수서』의 내용을 절대적 사실로 받아드릴 수 없지만, 두 고택간의 직·간접적인 건축적 연관관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소위, 고상식(高床式)의 입면 구성이 인근에 위치한 대산루, 용산정사, 옥류정, 추원당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상주지역의 건축 조형원리와의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두 고택 모두 개방된 부지에 집터를 정하고 있지만, 각 채들이 경상북도 북부 산간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口자형의 폐쇄적인 배치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요한 건축적 내용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고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공간구성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채는 정면5칸, 측면2칸의 一자형 양통집 평면을 취하고 있으며, 좌측부터 부엌과 안방, 대청마루, 건너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마루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자형 평면의 안채 좌우측면에는 익랑채가 연결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구조와 형태 등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 고상식 형태를 연상시키는 안채의 높은 기단은 남방의 지역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통집의 평면 구성은 북방지역 민가의 전형적인 실 구성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엌 상부에 2층 구조의 다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풍양조씨 문중 내 검간공 조정이 건립한 양진당의 입면 구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건축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장식 수법으로는 정면에 세운 방주(方柱) 모서리의 모퉁이 방식과 기둥 상부에 결구한 보아지를 파련각으로 초각한 것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엌 정면에 달아낸 판문은 문둔테와 인방이 하나의 부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부엌 2층 다락의 정면과 측면에 설치한 살창의 광창과 대청마루 쪽에 달아낸 격자창의 형식이 고식(古式)의 수법으로 보인다. 부엌과 건너방 앞쪽으로는 기단 상부에 활주 형태의 보조기둥을 세웠는데 과거 기록사진으로 볼 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안채 배면쪽에는 기단 안쪽에는 현대적 시설의 보일러실과 화장실 등의 공간을 덧대어 사용하고 있다.
- 사랑채는 현재 정면4칸, 측면2칸 규모로 一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으나, 과거 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본래는 丁자형의 평면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즉, 좌측부터 사랑방

2칸과 대청마루 2칸, 그리고 대청 뒤편으로 각각 1칸의 책방과 1칸이 화장실을 두고 있으나, 본래는 화장실 공간은 빈 공간이었으며, 이후 가설시설물의 화장실을 설치한 후 1993년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하였다고 한다. 또한, 현재 사랑방 2칸 중 좌측 1칸은 본래 대문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4년 행랑채를 현재와 같이 사랑채 옆으로 달아 붙이면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대청마루 정면에는 네 짝 들어걸 개문을 설치하고 천정은 연등천정으로 마감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1982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랑채의 건립 연대를 안채에 비해 다소 내려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 행랑채는 정면3칸, 측면1칸의 일자형 평면으로 좌측부터 2칸의 방과 1칸의 대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2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행랑채는 광과 헛간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당시에는 양철 지붕으로 변형되었으나, 본래는 초가이었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1994년 복원공사를 통해 현재와 같이 한식목구조의 기와지붕으로 개조하였다.

## 5. 지정가치

- 오작당 고택은 풍양조씨 입재공파의 종택으로서 기타 문중의 종택과 비교할 때 특이한 창건 배경을 갖고 있으며, 또한, 매년 불천위 제례가 행해지고 있고, 종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중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건축적 내력 즉, 변형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또한 행랑채 복원과 관련하여 문화재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없어, 국가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현재의 경상북도 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보고 사항

## 10.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셔틀버스 승강장 쉼터 조성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0건	허가 6건 조건부허가 4건
안동 하회마을 (국민 제122호)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장)	<input type="checkbox"/> 안동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강장 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91</li> <li>○ 허용기준 : 지정구역</li> <li>○ 신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티나무식재 2본, 수목보호 원형의자 2개소</li> <li>- 높이 6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장의 그늘 등 방문자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li> <li>- 다만, 객토, 배수시설 설치 등 수목 생육 환경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li> </ul> </li> </ul>
안동 시온고택 (국민 제287호)	경북 안동시 호명면 (○○○)	<input type="checkbox"/> 안동 시온고택 주변 농막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li> <li>○ 허용기준 : 1구역</li> <li>○ 이격거리 : 45m</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 :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 높이 2.6m</li> <li>- 규모/동수 : 8.5m × 4.5m × 2.6m, 1동</li> </ul> </li> <li>※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지법 제2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로서 시온고택에서 보이는 하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li> <li>- 다만, 농지법 제2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시설 기준 준수할 것.</li> </ul> </li> </ul>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0건	허가 6건 조건부허가 4건
안동 하회마을 (국민 제122호)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장)	<input type="checkbox"/> <b>안동 하회마을 전시가설물 설치</b> ○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44-2 ○ 허용기준 : 지정구역 ○ 신청내용 - 건축면적 : 1,080㎡ (327평) - 층수/동수 : 1층, 1동 - 규격 : 60m × 18m × 8m - 구조 : H빔 철골 (직사각형) - 외부마감 : 샌드위치 판넬 - 용도 : 미디어아트 및 전시 (세계유산전) * 사업기간 : 2020.7.1.~2020.10.31. (4개월/설치 포함)	○ 조건부허가 - 2020년 세계유산축전 관련하여 한국문화재단을 통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서 임시로 설치하는 전시가설물임. - 다만, 가설물의 외관 디자인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남원 몽심재 고택 (국민 제149호)	전북 남원시 도고면 (○○○)	<input type="checkbox"/> <b>남원 몽심재 고택 주변 무허가 축사 적법화</b> ○ 신청위치 :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 ○ 허용기준 : 4구역 ○ 이격거리 : 약 395m ○ 신청내용 - 대지면적 : 3,652㎡ - 건축면적 : 기존 912㎡ + 무허가증축 743.22㎡ = 1,655.22㎡ - 층수/높이 : 1층, 높이 5.5m - 구조 :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 허가 - 기존 축사를 증축하는 사안으로, 고택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약 395m 떨어진 4구역에 위치해 있고, 고택의 주변 산지에 가려 직접 조망되지 않으므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 성읍마을 (국민 제188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	<input type="checkbox"/> <b>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신청)</b> ○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 ○ 허용기준 : 1, 4구역 ○ 이격거리 : 약 290m ○ 신청내용 - 건축면적 : 97.64㎡ - 층수/높이 : 1층, 높이 4.2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씽글(지붕), 드라이비트(외벽)	○ 허가 - 2018. 2월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주의 개인사정으로 허가기간(2018. 2.20. ~ 2019. 2.28.) 내 착공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사안이므로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0건	허가 6건 조건부허가 4건
아산 외암마을 (국민 제236호)	충남 아산시 송악면 (○○○)	<input type="checkbox"/> <b>아산 외암마을 주변 농막 설치</b> ○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 약 135m ○ 신청내용 - 설치규격 : 3m×6m, 면적 20㎡, 높이 2.5m - 설치구조 : 컨테이너(가설건축물)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지법 제2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2)	○ 허가 - 소규모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문화재 구역 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직접 조망되지 않는 등 역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구례 운조루 고택 (국민제8호)	전남 구례군 토지면 (○○○)	<input type="checkbox"/> <b>구례 운조루 고택 주변 농막 설치</b> ○ 신청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 약 185m ○ 신청내용 - 설치규격 : 3m×6m, 면적 20㎡, 높이 2.4m - 설치구조 : 컨테이너(가설건축물)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지법 제2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2)	○ 허가 - 소규모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고택 주변 민가 건물 및 수목들로 인해 직접 조망되지 않는 등 역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세종 홍판서댁 (국민 제138호)	세종특별자치시 (○○○)	<input type="checkbox"/> <b>세종 홍판서댁 주변 용도변경</b> ○ 신청위치 :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 ○ 허용기준 : 3구역 ○ 이격거리 : 약 224m ○ 사업내용 : 용도변경(제조시설⇒자원순환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 규모 : 건축면적 494.22㎡, 연면적 494.22㎡ - 층수/높이 : 지상 1층/11.95m - 구조 : 일반철골조	○ 허가 - 신청위치와 문화재 사이에 문화재보다 지반이 높은 도로가 위치하여 문화재에서 잘 조망이 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의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0건	허가 6건 조건부허가 4건
보은 최감찰댁 (국민 제139호)	충북 보은군 삼승면 (○○○)	<input type="checkbox"/> <b>보은 최감찰댁 주변 가축용 간이퇴비사 증축</b> ○ 신청위치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약 246m * 충북민속문화재 제16호 보은 최혁재 고가에서 46m 이격 ○ 사업내용: 가설건축물(가축용 간이 퇴비사) 증축 - 규모 : 건축면적 195.10㎡, 연면적 195.10㎡ - 층수/높이 : 지상 1층/6.2m - 구조 : 강과이프구조/박공지붕	○ 허가 - 신청내용은 기존 축사 사이에 간이퇴비사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회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충북도의견 : 영향 없음
태백산 천제단 (국민 제228호)	강원 태백시 소도동 (태백산국립 공원사무소장)	<input type="checkbox"/> <b>태백산 천제단 주변 훼손 탐방로 정비</b> ○ 신청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 허용기준 : 문화재보호구역 내 ○ 신청내용 : 천왕단-하단 구간 훼손탐방로 정비 - 혼합형 계단(L=70m, W=1.5m) 설치 - 돌배수로(L=3m, W=0.5m) 2개소 설치	○ 조건부허가 - 훼손된 탐방로를 돌과 나무를 활용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탐방로 인근 자연석과 유사한 야면석을 유입하여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